

자유로운 주장 거침없는 발언 빈약한 자본



오답 승리의 희망



2주년기념 쉬운시험 ♥

과목코드(가)



청소년자유언론 오답승리의희망

오승희 7호 (2008.04)

♠ 정답만 강요하는 사회에 태클을 거는 오승희라 정답이 없는 문제도 은근 많다는 ♠



오지선다형 문제

1. 다음은 청소년자유언론 '오답승리의희망'(오승희)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 중 틀린 것 같은 것을 고르시오.

- ① 오승희는 매우 가난한 언론이다.
- ② 오승희 편집진은 편집을 마치면 다크서클이 짙해진다.
- ③ 오승희 신문의 제호 디자인은 매호 바뀌고 있다.
- ④ 명박이는 오승희를 좋아한다.
- ⑤ 오승희는 막장 언론이다.

2. 오승희를 읽은 후 '올바른' 감상평을 고르시오.

- ① 오승희 디자인은 참 이쁜거 같아.
- ② 오승희는 조중동보다는 나은 거 같아.
- ③ 오승희는 글씨가 너무 많아, 읽느라고 힘들었어. ㅍㅍ
- ④ 오승희는 돈이 매우 많이 없는 언론 같아, 2주년 기념 오승희도 흑백으로 뽑잖아...?
- ⑤ 명박이한테 주고 싶어.

3. 다음 보기에서 오승희 1호(창간호)부터 7호(이번호)까지 단 한 번도 사라지지 않고, 쪽 유지된 코너를 모두 고르시오.

- ① 투덜리즘
- ② 사노라면
- ③ Show me the 개념
- ④ 오답노트
- ⑤ 개인연구

4. 오승희에 글 또는 이미지(그림, 사진)를 기고하는 방법 중 옳지 못한 것을 고르시오.

- ① 오승희 사이트 '투고란'에 글이나 이미지를 올린다.
- ② 오승희 대표 메일(?)로 글이나 이미지를 보낸다.
- ③ 인맥을 이용한다.
- ④ 편집진들에게 라면을 사주면서 오승희에 실어달라고 한다.
- ⑤ 전북청소년인권모임 '나르샤' 또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같은 곳에 사뿐히 올려본다.

5. 다음 보기 중에서 바른 오승희의 풀네임(full name)을 고르시오.

- ① 저질스러운 주장, 거침 있는 발언, 막대한 자본 청소년막장 언론 오답승리의희망
- ② 상큼한 주장, 개념 있는 발언, 빈약한 자본 청소년자유언론 오답승리의희망
- ③ 자유로운 주장, 거침없는 발언, 빈약한 자본 청소년자유언론 오답승리의희망
- ④ 빵상, 호롤로르르르르로롤, 가끔씩 청소년자유언론 오답승리의희망
- ⑤ 착한 주장, 착한 발언, 착한 자본 착한청소년자유언론 오답승리의희망



단답형 문제

6. o, x 문제

- 1) 네이버(naver.com) 검색창에 '오답승리의희망'을 검색하면 오승희 홈페이지가 뜬다.
- 2) 오승희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료로 배포된다.

7.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자유로운 주장, , 빈약한 자본'



서술형 문제

9. '오답승리의희망'이 뜻하는 바를 2자 이상 서술하시오.

♠ 수고하셨습니다 ♠

계속



<투덜리즘> 참을 수 없는 '지못미 리스트'의 끝없음

얼마 전에 승례문이 화재로 홀라당 타버린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보도되자 인터넷에서는 너나 할 거 없이 "▶◀승례문지못미"가 아마 원더걸즈의 텔미 이래 가장 큰 세제가 되어버렸다. (아, 혹시 "지못미"가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 드리자면 "지못미"는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의 약자다.) 그동안 특별히 애정 같은 게 있었을 거 같진 않는데 불타고 나니 "국보 1호", "민족의 혼이 담긴 문화유산", "눈물이 났다", "가슴이 아팠다", "지못미"거리는 데서 위험한 민족주의의 냄새를 맡는 사람도 있었지만, 뭐이 글의 주제가 승례문이 한 양심적인 방화범 분(인명피해가 날까봐 기차에 안 했다고 하지 않는가) 손에 발린 사건에 대한 것은 아니니까 적당히 패스하도록 하자.

어찌 보면 "지못미"가 여기저기서 막 쓰이는 게 지금의 상황인데, 이 기회에 우리가 '지켜주지 못한' 수많은 것들에 대해 생각해보자. 사실 우리가 지켜줘야 했는지 아니 지키고 싶었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는 승례문보다도, "지못미"들이 많이 있다. 그래, 청소년이기 때문에 아니면 청소년 중 좀 많은 수를 차지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빼앗겼던 지켜주지 못한 것들. 아주 약간의 과장을 보태서, 그 '지못미 리스트'의 길이가 워낙 길기 때문에, 글씨 크기 273.15pt 줄간격 2.99792x10의8 승%로 만들면 우주까지 닿는 무지개 다리 대응으로 쓸 수 있을지도 모른다. ㅎㅎ

"지못미"가 뭐가 그렇게 많냐고? 글썄, 약간의 상상력을 보태서 '지못미

- 리스트'(예시)를 만들어보자.
- 쉬는 시간에 압수당한 명탐정 코난 만화책 4권, 그리고 연체료
 - 부모와의 싸움 끝에 포기해버린 나의 진학 희망
 - 단발머리까지 기르고 싶었으나 잘려나간 머리카락들 그리고 염색 머리
 - 매우 짧게 자르고 싶었으나 학교와 집의 압박이 두려워서 못했던 스타일.
 - 초등학교 때 갖다 바친 무수한 나의 일기들
 - 나의 가방 속 사생활, 그리고 휴대폰 문자메시지함의 비밀들
 - 성적표 나온 다음날 숙제 못해간 날 맞는 걸 두려워하지 않을 권리
 - 너무나 입기 싫었던 교복을 안 입을 자유
 - 안 걸렸으면 공책에 더 그릴 수 있었을 낙서들
 - 성적으로 평가당하지 않고 싶었던 나의 인간성과 가치
 - 외국에 군대 보내는 데 쓰인 교육 시설 좀 더 좋게 만들 정부 예산
 - 비틀즈, 아니면 너바나, 아니면 자동차 광고하고 있는 서태지 - r
 - 규칙을 함께 만들고 스스로 지켜나갈 기회
 - 나와 너의 인권에 대해 배울 기회
 - 만화방에 틀어박혀 책 읽을 시간
 - 연애할 기회
 - 잘 시간. 쉬거나 놀 시간.
 - 컴퓨터 조립해보고 라디오 분해해볼 시간들
 - 연애에 도전하거나, 연애할 기회
 - 농약이나 항생제 걱정 안 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들
 - 내 지문 정보들 (망할 주민등록증)
 - 돈 없거나 메이커 없다고 열등감 느

- 끼지 않아도 되는 삶
- 학원 안 가도 되는 교육
- 여유롭게 걷는 걸음걸이
- 좀 더 활발하고 재밌고 돈도 조금은 더 뽕뽕한 동아리 활동
- 대통령선거 때 만들고 싶었던 이명박 욕하는 UCC
- '보호자' 눈치 좀 안 보고 친구들이랑 여행 가거나 외박할 기회
- 밤 10시 이후 짬짬방 life
- 유서(유서의 내용은 입시경쟁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체벌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동성애차별에 대한 것일 수도 있다.)를 남기고 죽은 나의 친구
- 너의 미소 (이헿♡)
- 그냥 다 묶어서 인권과 행복, 자유와 평등, 세계평화
- 우주인, 미래에서 온 사람, 초능력자들을 찾아서 같이 놀기 (뽕미!?)
- ...너무 길어서 생략, 혁혁.

안 그래도 3월 새 학기가 시작되고, 학교 다니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기억력이 부족하다 못해 없던 사람들도 방학 동안 잊고 지내던 두발규제 복장규제 체벌 강제야자 아침 일찍 등교 등등 때문에 압박을 느끼고 있는 시기다. 여러분의 지못미 리스트에서 가장 위쪽에 올 항목은 무엇인가? 머리카락? 개성? 놀 시간? 꿈? 생존권이나 경제력?

무엇이건 간에, 언제까지 그따위로 "지못미"만 날리고 있어야 하는가? 아무리 지못미거리고 있어도 지켜주지 못한 것들은 돌아오지 않고 미안한 마음은 작아지지 않는다. 오히려 '지못미 리스트'가 길어질수록 미안한 마음은 커져가고 삶은 불행해진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지 않아도 되도록,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주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이제부터라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행동에 나서자. 이 글은 명백한 선동(남을 부추겨 어떤 일이나 행동에 나서도록 함)이다. 나는 지금 여러분이 행동에 나서도록 부추기고 있다. 머리를 자르려 하는 교사의 가위나 때리려는 매를 잡고 항의할 것을, 친구들을 설득해서 시위를 하거나 서명운동을 하거나 건의를 할 것을, 잘못된 교육을 거부하고 새로운 교육을 요구하고 상상할 것을 선동하고 있다. 겁이 나거나 부담스럽거나 다른 이유로 하기 힘든 분들은 이 오승희라도 가져다가 친구들에게 나눠 주거나 몰래 뿌려주십시오!

더 이상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는 "지못미"의 연속이어선 안 된다. 우리가 그렇게 않게 만들어야 한다. 이제 지켜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지켜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 빼앗긴 우리의 삶과 권리들을 이제부터라도 다시 만들어가자. 그것이야말로 "지못미즘"(?)의 완성이자 극복이다.



지켜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이제 다시 찾아올 생각을 하니, 웬지 두근거리지 않는가?

까칠한 승희 씨, 2살이 되어

2005년 겨울의 어느 피자집이었다. 눈이 많이 내리던 그 날, 그 피자집에서는 '자바차오', 좀 불쌍하게 보자면 '제발천원만', 대외적인 공식 명칭으로 보자면 '전북청인모 : 청소년권모임'의 새로운 사업에 대한 얘기가 오갔다. 자바차오가 처음 생겨났을 때부터 숙원사업이었던 계사판, 학교측의 생감으로 무산됐던 그것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형태의 계사판이, 논의되고 있었다. 그 날의 논의에서 결정된 것은, 청소년이면 누구나 글을 써 투고할 수 있고 또 누구나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 '순수 오픈이언 신문'의 창간과 <오답 승리의 희망>이라는 그 신문의 이름이었다.

그렇게 시작된 <오답 승리의 희망>이, 벌써 창간 2주년을 맞았다. 그리고 이번이 7번째 오답이다. 앞선 6번의 오답이 세상 속에서 정답과 투쟁하는 동안, 막 고3이 되는 입장이었던 필자는 어느새 대학에서 후배를 맞이하는 입장이 됐다. 함께 오답을 만들어내던 친구들 모두 고등학생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됐다. 난 별로 한 일도

없는데, 시간은 그렇게 흘렀다.

그 동안 우리는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가? 우리가 이것을 해서 얻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따진다면 글썄, 사실 딱히 할 말은 없다. 이 신문은, 아직 세상을 뒤집어엎기에는 너무나 얇고, 발행 간격은 너무나 뜸하고, 발행부수 또한 너무나 적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다. 단 하나의 정답만이 인정되는 이 사회에, 오답 또한 세상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함께하려는 사람들, 특히 청소년들이 하나둘씩 늘고 있다는 것이다.

정답만으로는 희망이 없다. 희망은

오답에 있다. 단 하나의 정답만을 인정하는 사회는 다양성의 부재에 빠지게 되며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든다. 이제 두 살배기가 된 우리의 오승희는, 정답과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당당히 싸워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 무기는 바로 여러분 - 특히 청소년 여러분 - 의 관심이다. 갈수록 발전하는, 청소년 계사판으로서의 기능에 더욱 충실한, 그리고 더 이상 '빈약한 자본' 때문에 여러분의 글을 다 실지 못하는 않는, 그런 언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별로 하는 일 없는' 필자의 작은 인사말을 이만 줄이도록 하겠다.

친구는 무엇일까

친구는 과연 무엇일까.

요즘들어 제가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혼자서 음악들을면서 제 생각을 정리하거나, 필요한 공부를 한다면, 읽고싶은 책을 읽는 다면가.

그렇다고 타인과 같이 있는 시간을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불필요한 대화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뿐이죠.

나이가 들면들수록 제 주변 아이들의 가식성과 이기적인 면들이 눈에 들어와 심란합니다.

오랜만에 모여 같이 수다를 떠는 것은 참 재미있죠. 서로의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그런 대화. 어느 누구하나 자기만 말하려 상대방의 말이 언제 끝나나 기다리지 않는 그런 대화. 이런 대화라면 전 정말 하루종일이라도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 주변의 아이들의 대화는 제가 상상하고 바라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것 같습니다.

'혼자' 있지 않기 위한 수단. 단지 그것을 위해 같이 모여 알맹이없는 얘기들을 나누고, 심지어는 다른 이를 비방하기도 합니다. 모두 각자 제 이야기하기 바빠 상대방의 얘기는 들으려하지 않고, 듣는 것 같아보여도 상대방의 말이 끝나자마자 자기 얘기를 총알같이 내뿜곤 하는...

전 정말 그런 아이들에게 적음이 안됩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랬을까요,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 슬플 따름입니다.

제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저 친분을 위해 같이 얘기도 할 수 있는거지 뭘 그래,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저 혼자있는데 창피하고 민망하고 왠지 모르게 얼굴이 붉어지는 그런 기분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친구와의 우정을 이용하는 것이 싫을 뿐입니다.

각자 개인의 시간을 즐기면서도 친구들사이의 우정은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절대 흔들리지않죠. 정말 진정한 우정을 찾되, 현 사회에서는 힘들어 보입니다.

같이 있으면 부끄럽지 않고 그저 재미있게 시간을 때울 수 있는 친구만을 선호합니다. 진지하지 못한 다수의 청소년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제가 너무 그대들을 왜곡하여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지내]

(자체 광고 >.<)

오답 승리의 희망(오승희)을 구독하면 좋은 6가지 이유

- ① 청소년인권운동이나 청소년운동에 대한 몇몇 소식들을 자주는 아니고 가끔씩 편파적으로라도 전해들을 수 있다. 또, 청소년인권이나 청소년들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가끔씩은 발랄하고 가끔씩은 아스트랄한 여러 관점들을 알 수 있다.
- ② 같은 고민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자주는 아니고 가끔씩은 읽어볼 수 있다. 그냥 왠지 나만 이런 고민하는 거 아니구나, 싫어서 좋다.
- ③ 여기저기서 불편한 만화라거나 뭐 그런 것들을 자주는 아니고 가끔씩 볼 수 있다.
- ④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거나 뿌리고 다닐 수 있다. 뿌리고 다니다 보면 청소년인권을 깨우치는 일부 사람들을 도발하거나 견제하거나 계몽(?)할 수 있다.
- ⑤ 자주는 아니고 가끔씩 자기 글이 실리게 되면 읽으면서 괜히 뿌듯해 할 수 있다. 나름 2000부나 배포된다. -_-v
- ⑥ 싸가지 없는 오승희 편집진들에게 심리적 기쁨을 주는 대신 그들을 좀 더 가난하게 만들 수 있다. ㅋㅋ (보내는 데 돈이 드니까 ㅠ)

* 화장실에서 휴지 없을 때는 식상해서 생각한다.

오답 승리의 희망(오승희)에 돈을 주면 더 좋은 3가지 이유

- ① 빈약한 자본의 투덜리스트들인 오승희 편집진의 생존과 정말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만큼 아름다운 신문 오승희의 안정적 인쇄, 배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② 오 내가 오승희를 후원하니 너무도 행복하고 즐겁구나. 이 은행의 계좌를 빌어 오승희를 후원하니 너무도 행복하고 즐겁구나 ... 알라랄랄라 오승희 파이팅!
- ③ 공짜로 오승희 받아보면서 느끼는 빛 진 거 같은 기분을 덜 수 있다. (진짜?)

구독신청이나 후원 등은 마지막 면과 <http://cantabile.mireene.com> 을 참고하세요.



(주) 혹시 학교에서 인권 같은 얘길 했다가, 아님 교사한테 좀 개겼다 "빨갱이" 소리 들어본 적 없나요? 얼마 전엔 "편향적 교육"을 했던 이유로 한 교사가 암수수색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과연 학생이나 교사들을 묶어놓는 "정치적 중립성"이란 말의 진짜 뜻은 뭘까요?
(만화 출처는 월간 「사람」 2007년11월호입니다. 불평자)

나는 너를 모른다.

- 근래의 진성의 모습에 대한 졸업생의 변 -

안녕하십니까? 아, 역시 좀 어색하다. 안녕하세요? 본인은 21살 쳐먹고도 제 앞가림 못하고 찌질거리는 대한민국 평균인 청년 1입니다.

가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애써 의식하려고 들지 않는 것 말이지요. 저는 때때로 울분이 터져서 외면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어요. 바로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에 대해서 말이에요.

경기도에 살고 계시는 학생들은 가끔 광명시 소재의 진성고등학교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흔히들 말하는 지역 명문고등학교죠. 유명 포털 사이트 검색 창에 진성고등학교를 쳐 보세요. 아마 '진성고등학교에 가려면 접수가 얼마나 나와야 되나요?' 등의 질문이 즐라 많을 거예요. 왜냐고요? 외고나 과고 같은 특목고도 아닌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면서 매년 명문대 입학률이 절저거든요. 매년 현수막을 내걸고 이번에 학생들 중 몇 명이 S대에 갔다, K대, Y대, E대에 갔다, 사관학교에 갔다, 의대에 갔다. 자랑을 해대니 실상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해카닥 할 뿐이죠.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은 진실을 원하는 분들인가요? 그렇다면 전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까발릴 준비가 되어있어요.

얼마 전에 1318바이러스라는 매체를 통해서 저는 제 모교에 대한 소식을 접할 수 있었어요. 두발규제, 소지품검

사, 체벌반대 등 학생인권침해에 반대하는 종이비행기 시위를 했대네요. 그리고 저는 조금 부끄러워졌어요. 저는 뒤에서 말만 많았지, 앞에서 행동하는 용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후배들이 참 자랑스러웠어요. 학교에서도 이를 반영해서 후배들의 요구를 수용 해주겠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동안은 참 뿌듯했죠.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시위 직후 애국조회 때 교장선생님의 훈화말씀과 학생부장 선생님의 설교가 녹음된 MP3 파일을 구해서 확인한 후에는 어이가 상실될 정도였죠.

교장 선생님께서 "공부 잘 하고, 짧은 머리와 인사 잘 하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며, 학교의 설립 목적은 이것이다. 교장인 나는 더 이상 이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겠다. 생각을 바꿔보아라."라고 하시는 부분에서 저는 절망적이었어요. 뒤를 이어서 학생부장 선생님이 협박조로 "지금까지 행해졌던 일련의 모든 행위들은 2007년이나 가능했던 행위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다 모두 여러분을 위해 하는 일입니다.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방식은 필요 없습니다. 공부만 하러 왔습니다. 대학생이 아닙니다. 분명히 방법이 잘못 되었습니다.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합시다. 자주 이러면 강한 교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슬픈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합니다."라고 말할 때 숨이 막혀오더라고요. 그리고 한숨이 나

왔습니다. 휴~.

저는 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이 학교의 실상을 몰랐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입학하고 나서도 한참동안은 다들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 알게 되지만, 외면하면서 모르는 척 3년을 지내고 졸업하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명문 고등학교를 나왔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진성고등학교에 다닌다고.....자부심? 웃긴 얘기죠. 이런 거 참 싫지만 그네들 방식대로 학교의 레벨을 나누자면, 위에 날고 뛰는 특목고들이 있는데 어떻게 개들을 다 제쳐놓고 엘리트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그래요. 니들은 엘리트라고. 우리 말만 들으면서 3년을 죽은 듯 보내면 너희도 '명문'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고. 부모님들? 좋아서 질질 싸면서 애들을 타박하죠. 선생님 말씀만 듣고 3년만 죽은 듯 공부해! 아니 근데, 만약 너라면 3년 죽은 듯 공부할래요? 년 살아있는데? 그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에게 죽음을 강요하는 거 아니예요? 먹고 싸고 공부하는 건 되는데, 먹고 싸고 노는 건 안 된단 말이지요. 거 참.

그런데 이 모든 게 진짜 가능한 학교가 진성고등학교예요. 전교생 기숙 사생활이라는 명목 아래 학생들을 감시하고,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기준에서 어긋난다면 싶으면 압력을 가하죠.

그리고 말해요. 이것은 교육의 일환입니다. 그럼 전 말해요. 제가 2학년 때 어떤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인데 가슴 속 깊이 와 닿거든요. 그것은 교육이 아닌 사육의 일환입니다. 우리는 개돼지가 아니에요.

후, 제가 너무 흥분했나요? 마지막으로 그럼 깔끔하게 마무리 해 볼게요. 좋은 말로요. 이걸 제가 3년 동안 애국조회를 하면서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은 이야기인데요, 요즘 세상은 정의가 없는 세상이에요. 위에 언급했던, 학생부장 직을 맡고 계시는 P모 체육 선생님께서 그러셨어요. 정의라는 것은 참 중요한 거라고요. 왜 정의롭게 살지 못하냐고요. 어째서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지 않고, 어째서 길을 가다가 학부모님, 선생님께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느냐고요. 어째서 떠드는 친구에게 조용히 하라는 말을 못하냐고 혼을 내시네요. 그 친구가 화를 내면 자신에게 말하라고, 그럼 그 친구를 타일러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강한 자에겐 강하게, 약한 자에겐 약하게! 그게 바로 정의래요. 그런데 정의를 신봉하며 정의롭게 사시는 그 선생님은 10년 동안 우리에게 100억을 착복해간 학교 설립자님께 90도로 허리를 꺾어 절을 해요. 선생님은 아직 그 분에 대해 잘 모르나 봐요. 아시면 그러실 리가 없겠지요?

자 다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모두 정의롭게 살자는 거예요. 언더스탠드? 이즈잇 플리어?

[그레이+너기]



(주) 광명 진성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옥상에서 종이비행기를 날리며 두발복장 규제 반대, 소지품 검사 중단, 체벌반대 등을 외치는 시위를 하는 모습.

조금만 덜 이기적이길

“우리도 다 너네들처럼 힘들게 공부했어. 너네만 힘들게 공부하는 거 아니라치고 공부나 해. 온몸이 부서지도록 하란 말이야.”

사람들이 조금만 덜 이기적이었으면 좋겠다. 나도 그렇게 공부했으니까 너네들도 못할 것없다, 뭐 한번 맛이나 봐라 등의 논리는

정말, 진심으로 이기적인 인간의 표상이라고까지 생각된다.

우리들의 후손들만큼은 이런 고통 속에서 자라지 않게, 자신들의 꿈을 스스로 포기하고 부러뜨리지 않도록. 현세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의 교육의 심각성을 깨달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교육에 학생이 있는 진정한 교육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교육에 학생은 없고 권력만 있다.

무섭고 포기하고 싶을만큼 지겹다, 이런 모순은.

[레지너]

(1) 청소년자치의정운동에 대하여

청소년자치의정운동. 한자로는 靑少年自治議政運動이라고 쓴다. 영어는 필자가 잘 모르니 생략하자.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할 것이다. 한자의 뜻으로만 보면 청소년들이 스스로 의회를 만들어 정치를 하도록 하자는 운동이다. 이게 무슨 갑자기 똥판지같은 소리인가. 청소년이 직접 정치를 하자는 말인가. 맞다. 바로 그 소리다. 청소년이 직접 스스로 정치라는 것을 해보자고 하는 말이다. 과연 이게 말이냐 되는 소리인가. 그렇다. 말이 된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직접 국회의원이 되자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치를 할 것인가. 간단하다. 우리가 우리들만의 국회를 만들어서 운영하여 그 뜻을 이사회를 운영하는 어른들에게 전하자는 것이다. 우리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어찌 보면 최선책이라고 생각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이쪽이 더 나을 수도 있다. 간단하게 생각해서 청소년들 중에서 국K-1경기에서 이길 자신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뿐만 아니라 299명중에서 청소년이 20명을 넘겨 교섭단체를 구성한다면 몰라도 몇 명을 국회의원으로 보낸다고 해서 별로 달라질게 없지 않은가. 하지만, 이 운동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국회를 구성하자는 뜻이다. 즉 국회의원보다 못해도 그에 준하는 의원을 청소년들 중에서 자체적으로 적게는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 명을 뽑자는 뜻이다. 그리고 그 우리의 자체적인 국회에 어른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자체적으로 처리하자는 뜻이다. 물론 그 외에도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의 현상들을 파악하고 이를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풀어나는 법을 터득해나감으로써, 학교폭력 문제와 같은 일상적 갈등해결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민주적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 돕고자 한다.'라는 유식하고도 극히 수동적인 취지도 있다. 그러나 이 취지는 이 운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렇지만 청소년자치의정운동은 그 동안 전자의 목적보다는 후자의 목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이것이 그동안의 이 운동이 지지부진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방금 나는 지지부진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표현을 했다. 만약 독자께서 눈치가 빠르다면 이 대목에서 이 운동이 말로만 뿐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그렇다. 이 나라에는 이 전국단위의 청소년자치의정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그것을 진행하고 있는 조직의 이름은 거창한 이 운동의 이름에 걸맞게 거창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청소년의회'가 그것이다. 이 글을 읽는 절대다수의 독자들께서는 당연히 이 조직의 이름을 처음 들어 봤을 것이고, 혹시나 이 이름을 아는 사람이라도 이 조직이 이런 운동을 한 조직이라는 주장에 선뜻 동의하지 못할 것이다. 그동안의 대한민국청소년의회는 대외적으로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인과응보처럼 현재 해산이 논의되

고 있으며, 이 글이 여러분의 손에서 읽힐 때쯤에 선 이미 해산을 당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필자가 이 글을 쓰는 현 시점에서 해산당하지 않고 조직이 유지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이 글을 통해서 독자여러분께서 현재 존재하고 있거나 혹은 존재했던 이 조직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한때 그 조직에 몸을 담은 경력이 있는 필자로서는 참 기쁠 것이다. 하지만 이 조직의 목적은 위에 말한 대로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의 현상들을 파악하고 이를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풀어나는 법을 터득해나감으로써, 학교폭력 문제와 같은 일상적 갈등해결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민주적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 돕고자 한다.'가 전부라면 전부이다. 이게 바로 이 조직의 전부이자 한계이다. 필자는 (물론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내부에서 이런 혁신이 일어난다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이 글을 쓰는 현 시점에서 그것이 불가능함을 알기에) 앞으로 대한민국청소년의회를 능가하고 대한민국청소년의회를 뛰어넘을 조직이 앞으로 생겨나길 바란다.



대한민국청소년의회
The Youth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 이게 바로 '대한민국청소년의회'를 나타내는 로고

청소년자치의정운동은 대한민국청소년의회라는 5년간의 실험을 통해 기초가 되는 기초적 접근방법이 잘못되면 결과 또한 비참함을 필자를 포함한 수백 명의 피와 눈물로 증명하였다. 청소년자치의정운동의 목적과 접근방법 등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논하고자한다.

먼저 지금까지의 접근 방법인 청소년의 민주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논해보겠다. 대한민국청소년의회를 포함한 여러 아류 자칭청소년대표조직이 어찌 보면 모두 이 접근 방법으로 들어가 왔으며, 이 시각이 완전히 틀린 시각은 아니다. 청소년자치의정운동에는 분명 약간의 교육의 측면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교육이 이 운동의 전부가 돼서는 결코 안 된다. 교육은 근본적으로 어른들이 청소년을 가르친다는 시각으로 접근되기 시작하며, 시적이 이렇게 된다면, 설사 그 어른들이 청소년들에게 스스로 엄청난 자치권을 부여했다고 생각하더라도 부족하기 마련이다. 뿐만 아니라 해당 청소년들 또한 알게 모르게 스스로 자신들을 교육하는 어른들에게 기대게 됨으로써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청소년의회가 실패한 여러 가지

근본원인 중에 하나이다. 그렇다고 이런 측면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닌 것이 이러한 운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가르침을 얻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필자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참가하는 청소년 스스로의 깨달음 또한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득권층의 어른들에게 청소년자치의정운동을 설득하고 이 운동의 현실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소재거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 접근법은 접근의 근본적인 기초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지만 부수적인 접근방법으로 적당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청소년의 이익단체로서의 접근을 논하겠다. 이 접근방법은 필자가 진정한 근본 접근방법으로 삼아야한다고 주장하는 접근방식이다. 하지만 그만큼 가장 조직되지 어려운 접근 방법이기도하다. 이 접근방식은 말 그대로 청소년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굳이 비유하자면 (실제 그러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론적으로)대한민국 국민전체의 이익을 대변하고 이를 국가를 지배하는 행정조직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 바로 국회이듯이 대한민국의 청소년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고 그 이익을 위한 주장이 사회적으로 공인되게 일원화 시키는 창구이자 그 주장을 현실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써의 청소년자치조직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수백 명의 국회의원들을 통해 다양하게 반영되고 처리되었듯이 각계 각층의 다양한 청소년들의 요구가 수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나 다수가 될 청소년의원들에 의해 이 조직에 반영되고 그것을 토론을 통해 다듬고 증폭시켜 실제 정치에 소리치고 이를 받아들여지게 할 역할을 하는 것이다. 어렵겠지만 이런 접근방식을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각 하고 스스로 조직하여 대표성을 청소년들로부터 인정받거나, 기득권층 중 기득권층, 기존정치권력에 의해 조직되어 합당한 권한(법률안 발의권 등)과 절차(전국적인 선거 등)를 이양 받는 조직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비추어볼 때, 힘들겠지만 후자의 절차로 이익단체로서의 접근을 근본으로 하는 청소년자치국회의 구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물론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진다면 최선의 결과일 것이다.

지금까지 필자가 생각하는 청소년자치의정운동에 대해 논하였다.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편집진이 허락해준다면 연재하여 다음호에는 구체적인 이 조직의 구성에 관한 논의를 서술하고 싶다.

[민혜경(民慧淸)]

(* 편집진 입장에서야 허락하고 말 것도 없이 그냥 기간 맞춰 투고해주시면 좋습니다. ㄱㅅ)

새로운 청소년언론운동을 제안하며

주류적인 언론들(여러 큰 방송사를 비롯해서 조중동문 + 종종 한겨레나 경향신문 등)은 대개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다. 사회적 소수자들의 문제는 언론들이 주로 다루는 정치경제 영역에서 중심 이슈로 자리 잡기 어려울 뿐 아니라, 좀 더 자극적이거나 신선한 것을 내보내고 싶어 하는 매스컴의 속성상 아주 심각하거나 눈에 확 띄는 사건 외에는 보도조차 잘 안 해주기 일쑤다. 때로는 언론들이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대한 차별적 인식을 조장하는 논조의 뉴스나 칼럼 등을 내보내기도 한다. 참세상, 레디앙, 프레스인, 민중의 소리, 프로메테우스 기타 등등 이른바 "진보(좌파)적 언론"들도, 여러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해 주류 언론만큼 차별적이거나 무관심하진 않더라도 만족스럽진 못하다.

그래서 우리는 '언론운동'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조선일보에 나오지 않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최대한 알리고 공론화시키고 소통할 수 있을까? 보도자료를 뿌리고 취재요청서를 보내도 뉴스가 되지 않는, 어쩌다 보도되더라도 의도와는 전혀 다른 논조로 이야기되기 십상인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선 뭘 해야 할까? 사회적 공론화의 장이자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매체로서의 언론은 분명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운동에 있어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영역이다. 결국 사회적 소수자들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대안적 언론을 만들어서 그들의 이야기를 공론화시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운동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잘 이슈화되지 못하는 운동들(소수자운동일 수도 있고, 다른 비주류 운동일 수도 있다.)의 언론운동이 필요하다. 소수자들에 대해 전문적으로 다루는 언론들이 모두 운동으로서의 언론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이야기되어오지 못한 소수자들의 이야기들을 담으려 하고 소통을 꾀한다는 점에서는 최소한의 운동적 성격이 있다고 해볼 수 있다. 특히 여성주의저널 일다 같은 경우는 운동적 성격이 강한 대표적 언론이다. 언론운동의 다른 예로는 대학가에서 발행되곤 하는 특정 주제(: 여성주의나 장애 등)의 잡지, 저널, 소식지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여러

웹진 등을 꼽을 수 있다.

새로운 청소년언론운동이 필요하다

그럼 청소년운동과 청소년언론의 경우는 어떨까? 1980년대 후반 일찍부터 '푸른나무-우리시대' 등 청소년언론운동을 한 모임들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있지만, 지금은 청소년언론운동이라고 할 만한 것이 얼마나 있는 것일까?

우선 여기에서는 청소년운동과 연관을 맺고 있는 언론(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싶다. 예를 들어 '스스로넷'처럼 정부가 만들고 청소년들에게 기자 활동을 체험시켜주려는 느낌이 강하면서 언론의 기능은 별로 없는 것, 유스트림이나 청소년소리기자처럼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관변 시스템 등은 모두 논의에서 제외하려고 한다. 아, 활동이 정지된 곳과 학교 안에서만 발간되는 교지라거나 학교신문 등도 제외하도록 하겠다. 학교를 비롯해서 자기생활영역에서의 언론활동을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이야기하려는 내용과는 조금 범주가 다른 것 같아서이다.

뭐 언론이라면 내가 활동하는 <오답 승리의 희망>이나 <청소년의 눈으로> 등도 있긴 하다. 하지만 <오답 승리의 희망>은 3개월에 한 번씩 나오며 사실보도보다는 주장이나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주로 실는 신문으로서 좀 다른 성격의 매체이고, <청소년의 눈으로>는 돈 문제 등으로 인해 정기적 발간조차 힘든 상태다. 적어도 내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일간 또는 주간지로서 시의성 있게 보도를 전하는 청소년언론은 <1318virus>라는 인터넷언론 외에는 현재 없다. (내가 정보가 부족해서일 수도 있으니 혹시 아시는 분은 가르침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318virus>가 뭘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소개드리자면, 본래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언론사업부였던 <1318virus>는 2005년에 정식으로 독립 창간되었다. 상근 기자와 사무실을 갖추고 매일 같이 청소년들에 대한 기사들(여러 청소년단체의 소식이나 행사활동 기사를 비롯해서)을 써서 내보내고 있고, 포털사이트나 다른 언론과의 기사 제휴 등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그런데 청소년인권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나는 <1318virus>만으로 충분한지 고민을 느끼고 있다. <1318virus>의 편집 방침이나 논조, 또는 기사 내용 등에서 '정치적 불편함'을 느낄 때가 종종 있었던 것이다. 예컨대 "술 먹은 청소년 범죄위험 더 높다"와 같은 청소년에 대한 보호주의적/규제주의적 입장을 여과 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기사가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실린다거나, [학원탐방] 기획으로 학원 광고에 가까운 기사들을 메인에 배치하거나, "이성교제"라는 동성애차별적 표현을 계속 사용한다거나, 비청소년들에게는 "씨", 청소년들에게는 "군", "양"이라는 호칭을 쓴다거나 등등...

하지만 내가 "<1318virus>가 이러한 문제들을 갖고 있으니 새 언론을 만들자."라고 하려는 것은 아니다. 교과서적인 이야기지만,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해서 대화를 통해 고쳐도록 하면 될 일 아닌가? <1318virus>의 불만족스러움은, 새로운 청소년언론운동을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아니다.

나는 청소년언론운동의 좀 더 커다란 그림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그 동안 <1318virus>에 비판할 부분들, 또는 청소년인권의 입장에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을 때 나는 왜 소심하게(-_-) 댓글로만 문제제기를 해왔을까? 다른 좀 더 강한 문제제기들도 가능했을 텐데. 거기엔 내 소심한 성격의 문제도 있겠지만, 1318virus의 독점적 지위와도 관련이 있다.

현재로서는 <1318virus> 외에 적당한 청소년언론이 없기에, 나는 은연중에 <1318virus>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가끔씩 <1318virus>에서 기사가 부족해서 안 오거나 기사를 안 내 보내면 얼마나 곤란했는지 생각해 보면...) 또한 다른 관련된 언론이 없기 때문에 <1318virus>의 문제에 대해 비판하고 공론화시킬 공간도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이다. 즉 하나의 언론에 의존도가 너무 높은 청소년운동과 청소년언론운동의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게다가 내가 감히 청소년언론운동은 모두 내 입맛에 맞아야 한다고 요

구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다. 나는 <1318virus>가 인권의 원칙을 좀 더 강하게 지켜나가고 만들어 가주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재네는 청소년언론도 아니야." 식으로 공격할 수는 없다.(분량 문제로 자세히 쓰진 못하지만 <1318virus>는 여러 장점도 갖고 있으며, 어떻게 보면 '충분히' 잘 하고 있다.) 만약 내 주장이 <1318virus>가 정하고 있는 원칙이나 논조에 어긋난다면,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요컨대, 지금 청소년운동들이 여러 입장, 여러 영역, 여러 성격으로 전개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청소년언론이 필요하다는 것이 내가 내린 결론이다. 또한 <1318virus>는 스스로 (최근 [학원탐방] 기사에 관한 대화 자리에서) 운동단체가 아닌 언론사라고 이야기한 바 있었는데, 그렇다면 운동단체로서의 성격을 뚜렷이 하는 언론도 하나나 두 개나 세 개쯤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아니, 그런 언론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새로운 청소년언론운동을 제안한다. 내 입장에서 그 새로운 언론운동은 청소년인권운동을 하는 언론일 것이다. 내가 '청소년언론'을 제안한다고 하지 않고 '청소년언론운동'을 제안한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맥락인데, 단순히 언론을 하나 만들자는 게 아니라 운동으로서의 언론, 언론으로서의 운동을 만들어보자는 것이다.

구체적인 구상은 더 많은 고민을 한 후에 함께할 여러 사람들과의 이야기를 거쳐야 이야기할 수 있을 테니, 여기서는 일단 운만 띄우도록 하겠다. 우리에게 좀 더 청소년인권의 원칙에 기반을 둔 다른 색깔 다른 목소리 다른 냄새 다른 맛의 청소년언론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는 분들은 그 시작을 위한 논의에서부터 함께해주시길 바란다. 언론을 새로 만드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며, 제대로 자리 잡을 때까지는 몇 년의 시간이 걸릴지 모를 일이다. 실패로 끝날 수도 있는 일이다. 그래도 나는 감히 그런 어려움까지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쩌면 좀 더 원칙적일 수 있는, 어쩌면 좀 더 불운할 수 있는, 좀 더 실험적이고 잘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청소년언론운동이 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날 청소년단체 기자회견문)

이명박 정부의 천박한 불도저 교육정책을 반대한다. 경쟁과 약육강식의 교육이 아닌 상생과 다양성, 행복의 교육이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취임식을 맞아, 우리는 이번 정부가 대선 전부터 비관이 빗발쳤던 교육정책에 대한 재검토 없이 그 정책을 그대로 강행하려는 것에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오늘로 출범을 맞는 이명박 정부는 그 막무가내 교육정책의 실제 희생자가 될 교사, 학부모, 청소년 등의 우려와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도저정신 그대로 경쟁을 강화하는 교육정책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는 정신은 허울 좋은 개방 끝에 잣더미가 돼 버린 송례문처럼 역사속의 유물이 돼 버렸다. 듣고 더 듣고 따지고 더 따져 심사숙고해도 모자랄 판에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영어몰입교육이라는 카드를 꺼내들며 고교다양화프로젝트(고교서열화정책), 대입자율화(본고사 부활)만으로도 이미 파탄에 이를 교육을 더욱 세차게 뒤튼다고 있다. 그동안 그 어떤 정부도 청소년들의 의견과 입장을 교육정책을 만드는 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지금까지의 교육정책도 엉망이었지만, 이번 정부와 그 교육정책은 그 정도가 한층 더 심하다.

사교육을 없애겠다는 말이 무색하게 학원가에는 영어바람이 불고 있으며 학원 원장들은 쌍수를 들고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환영하고 있다. "솔직히 이정도일 줄 몰랐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한 대형학원 원장의 말은 이미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향한 시민들과 교육 관련자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청소년인 우리들은 친구를 경쟁자로 짓밟아야만 하고 하기 싫은 공부를 성적을 위해 해야 하는 입시 경쟁으로 지금도 충분히 힘들다. 이명박 정부의 교

육정책은 경쟁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이고, 결국 교실에서 우정을 쌓기 는커녕 친구를 밟고 일어나야만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일그러진 교육 현실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우리들의 적성과 꿈은 입시성적과 경쟁에 더욱 더 휘둘리게 될 것이며 그 속에서 우리들의 다양성은 더욱 파괴 될 것이다. 남는 것은 '다양성'과 '자율'이란 말로 포장된 획일적인 서열화와 황폐한 경쟁, 그리고 차별과 양극화뿐인 것이다. 영어몰입교육 등으로 인해 우리들의 공부 부담은 늘어나기만 할 것이다. 가난한 부모들은 감당할 수 없는 사교육비로 자식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못하는 좌절감에 시달릴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한 마디로 청소년들에게 경쟁과 획일적인 줄 세우기만을 강요하고 서민들을 부익부빈익빈의 잔인한 정글로 내모는 정책이다.

도대체 얼마나 죽어야 이 살인적인 교육을 제대로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할 것인가? 정부는 경쟁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꿈과 창발성은커녕 고통과 죽음을 안기고 있는 지금의 입시, 교육정책을 완전히 바꿀 생각을 해야 한다. 그것이 '경쟁자'가 아닌 진정 교육을 고민하는 사람의 역할이다.

최근 <한겨레>기획연재나 <MBC>교육3부작 「열다섯 살, 꿈의 교실」을 통해 알려진 핀란드를 비롯한 몇몇 교육선진국의 사례는 우리나라와 같은 경쟁과 주입식교육이 아닌 연대와 소통을 중시하는 교육방



식이 전인적 발달과 학생의 행복에 훨씬 좋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욱 높은 학업성취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오렌지를 "오렌지"로 바꾸는 것 따위의 영어발음 수입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행복과 교육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교육을 어떻게 한국에 구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청소년은 공부하는 기계도 아니고 천박한 교육시장의 부속품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그 불도저식 정책으로 교육과 우리의 삶을 위협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행복과 권리, 그리고 진정한 '참교육'에 대한 희망으로 함께 이명박 정부에 맞설 것이다.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문화예술센터, 청소년 다할개,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무 제 無題

요즘 새학기가 시작되고 모두들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내 나이 이제 열여덟..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서 조금 부담도 갖게 되고, 죽어라 공부하는 아이들을 보며, 나도 그 현실에 따라가게 되는 것 같다.

쉴새없이 우리 학생들이 그저 공부하는 기계로밖에 느껴지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아이들이 부럽게도 느껴지는 게 사실이다.

내가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운동을 시작하면서 나는 부쩍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다.

이 현실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으면... 우리가 이렇게 하루종일 공부에 매달리고, 입시에 매달리는 그 현실이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고,

내 성공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느꼈다면...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걷지 않았을 텐데...

그저 다른 아이들처럼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대학 가서 잘먹고 잘사는 길을 택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든다.

어쩌면 그 아이들이 더 현명할지도 모른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느 선생님께서 수업중에 물으셨다.

"너희가 사는 목표는 무엇이나?" 그 질문에 아이들의 대답은 이랬다.

"잘먹고 잘살려구요."

"하고 싶은 일해서 성공하려고요."

잘먹고 잘사는것..? 혹시 지금 먹는 게 부족한 것일까? 아니. 그건 아니었다.

아니면 지금 사는 것이 힘든 것인가..? 아니, 그것도 아니었다.

그럼 대체 얼마나 잘먹고 잘살고 싶어서 그러는 걸까?

그리고 다른아이의 대답은 이것이었다. "좋은대학 가려구요."

좋은대학? 좋은대학 가서 뭐하지? 성공하려고요.

성공... 성공중지..

하지만 나는 그것들이 정말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잘먹고 잘사는것, 그리고 성공... 나도 불과 2년전까지만 해도 이런 생각을 가졌었다.

하지만, 이것들이 대체 무엇을 가져다 주는 거지?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게 아닌가.

물론, 그들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이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이 현실을 알기 때문에,

이 사회의 부당한 점을 알기 때문에

남들처럼 살지 못하고 어려운길을 걷게 된 내 마음 속 한편

으로는 그들을 부러워하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하지만 이 길을 선택한 걸 후회하진 않는다.

아직 시작하는 단계지만, 분명 노력한다면 이루어질 날이 올 것이다.

내가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운동을 하는 이유로 피해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진 않을 것이다.

나는 비록 이 체제를 비판하면서도 어쩔수없이 이 체제에 맞춰 살아야 하지만,

내 후배들에게만은, 그 다음 후배들에게만은 이런 경험을 주고 싶진 않다.

한창 놀면서 꿈도 키울 나이에 하루종일 꼬박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만 해야 하는

이런 슬픈 현실을 대물림하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나는 이 운동을 계속할 것이다.

[미친고양이]

누구를 위한 대학자유화인가

내신문제에서 우리가 정말로 생각 해봐야 할 대목은 "누가 내신비중 축소를 주장하는가"라는 것이다. 이쯤 되면 엄연히 계급적 문제가 얽힌 질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내신비중 축소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강남의 학교들, 그리고 특목고들이다.

시대분위기가 너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섬뜩하게 느낄 수 있는 계상류층 젊은이들의 의식이다. 이원복 교수가 어느 순간 한국은 "부자를 미워해서 자본주의정신이 정착이 안 된다"며 부자를 미워하지 말 것을 끊임 없이 부르짖었는데, 지금도 그러고 있다면 이 아저씨 만화가 그만해야하지 않나 싶다. 부자를 동경하는 것은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렇다고 쳐도, 빈자를 대놓고 무시하는 것이 쿨한 것쯤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지금 이 사회의 분위기다.

학생들의 입시커뮤니티인 '오르비스 옵티무스' 등의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서울대의 '지역균형선발제'가 못매 맞는 모습을 끊임없이 볼 수 있다. 강남권 학생들은 '지균'을 없애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한다. 물론 이들의 주된 논거는 지균이 지역의 인재를 서울대가 독점하여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를 더 황폐하게 만든단거, 실제론 지방 중소도시가 아닌 지방대도시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내용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능은 왜 더 높은

데, 실력이 더 좋은데, 우리보다 공부 못하는애들을 왜 뽑느냐는 불만이다. "지방 살면 다냐?"라는 한심한 발언도 이따금씩 보인다.

무지는 죄라고. 지방 살면 다냐. 이 발언을 한 학생은 서울과 지방 사이의 교육환경 격차를 전혀 모르는 녀석이다. 사교육 시장의 격차는 물론, 한 학년에 500명이 경쟁하는 환경과, 한 학년에 100명 정도 경쟁하는 환경이 빚어내는 차이도 무시할 수 없다. 각종 유명학원이 앞다투어 개척하는 입시설명회 등 정보에 대한 접근권에 있어서도 격차가 벌어진다. 대졸자 및 전문직 학부모 분포도를 보아도 확실 차이가 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잣대로 경쟁한다는 것은 수도권 학생들의 유리한 입지 거저 먹고 들어가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실질적으로 기회의 평등 따위는 없다.

유리한 교육환경에서 다소 우수한 학생들이 모인다면 내신에 불리한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집적이익'이란 것도 존재한다. 명문고가 제공하는 일종의 '집적이익'은 '스트레스' 못지않게 커다란 것임을 깨닫고 깜짝 놀란 바 있다. 우선 자기 점수에 대한 상대적 만족 기준이 올라간다. 남들이 다 잘하니까 계속 공부를 하게 되서 아예 만족하는 점수가 달라지고 웬만하면 목표 점수에 맞춰 실질적 자기점수도 상승하게 되어있다. 상위권 학생들이 모

여서 스테디라도 하면 그 효과도 배가 된다. 혼자서 공부하는 사람은 어지간하지 않고는 따라가기 힘들다. 결국 내신이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명문고 학생들이 명문대 더 많이 간다. 내신 불이익을 상회하는 인센티브가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내신불이익 없애달라고? 욕심이 너무 지나치다. 그것이야말로 불공정 경쟁 아닐까.

내신비중을 비약적으로 높은 8차 교육과정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입시에 내신체도를 강화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일선 고등학교 학교교육의 충실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모적인 경쟁과 스트레스만 야기한다는 문제도 잘 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라면 다양한 대학입시전형도 있어야 하는 쪽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지금의 "대학의 자율성/자치권"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논쟁의 맥락에는 중고등학교 교육의 내실화도, 학생들의 실질적 부담 문제도,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 문제도 모조리 누락되어있다. 어차피 "그들"만의 자유가 될 대학자유란 이름 아래 이 모든 맥락들이 아예 조명조차 못 받고 있는 것이 문제다. 조명은 못 받지만, 대학들의 입시전형에 따라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영향을 받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말이다. 아무도 조명해주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생

존경쟁의 결과는? 당연히 무조건 강자의 승리다. 그것도 부모, 출신지 등으로 인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강자의 승리.

적어도 국립대만큼은 전국곳곳의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중간에 과정적 불평등은 수도권 사람들이 누리는 인센티브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동시대인에 대한 연대의식만 있다면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고 본다.

서울대학교 학생들 거의가 중산층인데 국고보조금 뭐하러 주느냐는 목소리가 많지만, '거의 다 중산층이 서울대학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본질적인 문제인 것이다. 문제는 이장무 총장 이후 이런 국립대학교의 사명은 "세계적 명문대학"이라는 명분과 바꾸어 어디다 갖다 버린 거 같다. 영어에 능통하고 와인 마시는 법도 잘 알고 테이블 매너도 좋은 글로벌한 CEO, 그러나 정작 자기 옆동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학교교육이 마음에 안 들면 과외선생을 붙이면 될 거 아냐'라는 말을 천연덕스럽게 할 듯한 그런 인재를 키우려고 하나보다.

대학의 자유?
누가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인가가 더 큰 문제 아닐까.

[박]



갑갑해서 목이 메는 사람들

지나가는 차별금지법 이야기

정부가 낸 차별조장 차별금지법이 결국 이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 같아. 17대 국회래봤자 얼마 안 남았는데 국회의원들은 선거 땀에 정신없으니까 어차피 좀 개념 있는 차별금지법 만들기는 안드로메다로 날아간 지 오래였으니 뭐...

덧붙여서, 아무래도 새 정부가 차별금지법을 만들 거 같지도 않아. 이번 정부에게 '진보'란 소수자나 약자의 입장에서 사회를 바꾼다거나 정의, 인권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토X카, 진보를 향한 열정"처럼 기술 좀 발달시키고 돈 좀 버는 거 같으니 말야. 훗.

차별금지법 만들기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차별을 없애는 활동들을 하기 위해 '반차별공동행동'이라는 걸 이번에 만든다고 해. 청소년들에게도 학력학벌 차별이나 나이 차별은 신경 안 쓸래야 안 쓸 수 없는 문제이고, 청소년들 중에도 성소수자, 장애인, 여성, 이주민, 에이즈 감염인, 비정규직 당사자 등등이 있지? 지금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몰라도, 한 번 관심 가져보는 게 어때?

(오른쪽 그림은 반차별공동행동에서 열었던 반차별영화상영회 홍보물 일부)



입시폐지 대학평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

나는 몇 달 전 입시폐지 대학평준화에 대한 동영상 만들어 올린 적이 있다. 싸이월드 광장에 'Where Am I'라는 제목으로 올렸던 그 동영상은 11월 24일에 있었던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문화제를 홍보하고 입시폐지 대학평준화를 알리기 위하여 만들었던 것으로 홍성지역에 학생들이 직접 손으로 입시폐지 대학평준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던 피켓을 사진으로 찍어서 만든 동영상이다.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않았었지만, 의외로 여론마당 부분에서 베스트 3위를 해서 나조차 놀랐었다. 물론 댓글에 달린 내용에는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분들도 많았지만, 고작 공부하기 싫은 학생이 개기부리는 것으로만 보는 분들도 있었고, 어른이 되면 세상 살기 더 힘들니까 그냥 이 현실에 순응하라는 분들도 있었고, 자신도 어릴 땐 그렇게 생각했지만 살다보면 그게 아니라고 포기하라는 분들도 있었고, 입시폐지 대학평준화에 대해서 날카로운 질문들 던지시는 분들도 계셨다. 보면 알겠지만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중 몇몇 분들과는 거의 토론을 하다가 피했다.



우리 학생들은 아침 일찍 등교해서 밤 11시까지 야자를 하고, 그거로도 모자라서 학원이나 과외를 찾는다. 학원이나 과외를 갔다가 집에 오면 밤 12시가 넘는 게 태반이다. 그리고 나서 바로 잘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숙제를 해야 하고, 수행평가가 있는 날이면 거의 밤을 새다 시피 하는 것도 부지기수다.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스카이 대학에 집착하고 입시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개개인의 능력이 다르고, 꿈이 다른데, 왜 우리는 같은 곳에서, 같은 것을 배우고, 같은 기준으로, 같은 곳을 향해서, 같은 시험을 봐야 하는 것일까? 각자 잘하고 좋아하는 분야를 배우게 해주고, 자신의 꿈을 이루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 아닐까?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서 사람이 자원이라고는 하지만, 그 자원의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진정한 인재를 키우려면 개개인이 잘하는 것을, 그리고 좋아하는 것을 배우게 해줘야 한다. 모두 똑같이 국영수 위주의 공부가 아닌 개개인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분야로의 인재양성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는 학벌 위주의 사회이다. 학생 때 받은 성적과 학력이 평생을 좌우한다. 더 좋은 학벌을 획득하기 위해 연간 20여조 원의 사교육비를 투자하는 사회, 입시지옥에 시달려 한 해에도 수십 명의 학생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야만적인 사회이다. 부모님께서는 자신처럼

힘들게 살지 말고, 우리만이라도 편히 살라며 등 돌리다 하도록 돈을 벌어서 학원과 과외를 시켜 주시고, 선생님은 우리에게 입시만을 위한 공부를 가르치고, 잘못된 이 현실을 알면서도 나서는 선생님님이 있는가하면 묵인하시는 선생님 또한 많다. 우리는 꿈도 희망도 없이 공부에만 매달리다가 결국 입시라는 압박과 부모님에 대한 죄송한 마음에 자살을 택하기도 한다. 이것만 봐도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제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학교, 집, 도서관을 시계추마냥 움직이며 치열한 입시경쟁속에 내몰린 현실..



이런 잘못된 입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평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입시문제는 대학서열체제가 존재하는 한,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스카이 대학에 입학하려는 경쟁에 돌입하는 한, 그 어떤 입시제도도 가혹한 입시지옥을 해결할 수는 없다.

그리고 대학평준화가 실시되면 우리들의 학력이 저하된다고 우려하는 어른들도 많은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오히려 대학평준화가 되어야 우리는 프랑스처럼 입시위주의 단편적인 지식과 획일적인 교육 속에서 벗어나 다양한 독서와 토론 활동, 체험활동을 통해 폭넓은 교양과 진정한 창의력이나 문제해결능력을 기를 수 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인 교육의 획일화도 사라질 수 있다. 또한 '어떤 대학은 ○○학과가 좋고, 어떤 대학은 △△학과가 좋다.'는 식으로 대학별 특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는 프랑스로 파리 1대학, 파리 2대학 이런 식으로 나뉘지만, 각 대학은 전문 분야별로 특성화가 되어있다. 대학평준화가 되면 대학의 학문경쟁력이 낮아질 거라고 하지만, IMD에서 측정하는 학문경쟁력 1위인 핀란드는 완벽한 평준화체제이고, 세계적인 석학을 배출하는 나라인 프랑스 역시 대학평준화 체제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입시경쟁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치열하기에 더 높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다. 대학서열화에서는 대학 간의 진정한 경쟁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학서열화체제에서는 서울대는 영원한 일등이고, 지방대는 영원한 하위권이다. 잘하는 아이들은 모두 서울대를 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학 간의 실력차이도 매우 큰 편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대학평준화를 실시해서 대

학 간의 진정한 학문적 경쟁이 일어나 대학이 더 발전할 수가 있다. 또 대학평준화는 전국의 모든 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상향평준화로서, 어느 지역, 어느 대학에 입학하든지 별다른 교육의 수준 격차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대학의 졸업장 역시, 어느 대학이든 동일한 졸업장을 수여하는 통합학위 제도를 실시하기 때문에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에 따라서 사회적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학벌위주의 사회가 아닌 것이다. 또 대학평준화 정책은 학력, 학벌 차별 금지법, 공무원 지역 할당제 등의 다양한 사회적 조치와 함께 시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을 두고 서울 지역의 대학으로 갈 필요가 없게 된다.

하지만 높은 사회적 위치를 가지기 쉬운 의대, 법대 등으로 선호하는 학과가 여전히 존재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적절한 제도적 조치와 운동이 전개되면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따른 학과지원이 일반화 될 것이다. 의대, 법대, 사대는 대학원에만 학부를 개설한다면, 일부 학과에 집중되는 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안으로 의사나 변호사를 대폭 늘려 다른 나라처럼 임금을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11월24일 입시폐지대학평준화 행동 때 등장한 "우리는 공부만 하는 로봇가 아니야!" 전시물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edu4all.kr)'에서는 지난해 11월24일을 전국 공동행사의 날로 지정하여, 전국 각지에서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범국민대회+문화제를 열었다. 또, 경상대학교 정진상 교수님은 '학벌철폐'라는 깃발을 자전거에 달고 전국 자전거 투어를 하셨다. 그리고 수능 날, 도심 한 복판에서는 '입시폐지 대학평준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1인시위가 진행되기도 하였고, 많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관련 UCC를 만들어 올리기도 한다. 아직은 시작단계에 불과하지만 점점 더 발전해나가고 있다.

[미친고양이]

아나키즘과 청소년 해방



오늘날의 사회에서 아동은 독특한 방식으로 억압되어 있지만 이들이 겪는 억압에 대해서는 스스로 진보적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나 급진적인 사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잘 모르기 일쑤다. 불평등과 강요에 기반해 아동과 성인의 관계가 이뤄진다는 사실은 보통 인종차별이나 성차별 등의 사회적 억압과는 전혀 다른 문제로 받아들여지는데, 그 이유는 아동에 대한 차별이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것 아닌가 하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아동은 경험이 부족하고 아직 미성년이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을 내리거나 자신의 일을 스스로 처리할 능력이 없다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인이 아동에 대해 어떤 형태의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라 믿는다. 개인의 주권과 강요하지 않음, 그리고 자유연합과 상호부조의 원리에 기반하고 있는 아나키즘의 사상은 부모역할론, 교육일반론 그리고 아동육성론 등에서 비권위적 이론을 공식화하는데 중요한 도움을 제공한다. 또한 억압적 사회를 살아가는 아동들이 해방을 시작하는 데 아나키즘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아동이 성장하면서 제일 먼저 경험하는 권위는 부모로부터 나온다. 부모는 아동이 태어난 날로부터 만 18세 또는 19세에 이를 때까지 법적으로 정당화된 보호권을 갖는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권위적이고 위계적인 관점에서 아동과 관계를 맺는다. 부모는 아동을 소유물로 바라보는데, 그래서 아동은 양육되어야 하고, 보호되어야 하며, 적정선을 지켜야 하고, 통제되어야 하며, 규율을 배워야 하고, 선행을 했을 때는 칭찬을 받고 잘못했을 때는 체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아나키스트들은 아동에 대한 이런 식의 개념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은 아동을 부모의 부속물로 바라볼 뿐, 아동 역시 자율적 존재로서 자신의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아나키스트 미하일 바쿠닌은 다음과 같이 간명하게 정리한다.

“아동은 그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다. 아동은 부모의 소유물도 아니며, 심지어 사회에 소속된 사회적 소유물도 아니다. 아동은 그저 자신의 미래에 소속될 뿐이다.”

일부 부모들은 핵가족 하에서의 숨막히는 분위기

를 합리화시키기 위해 ‘자식을 과도하게 보호한다’거나 ‘자식을 지나치게 사랑한다’는 식으로 변명을 하기도 한다. 성별화된 질서가 생성되고 강화되는 것이 바로 이런 핵가족 제도다. 권위적인 이데올로기가 다음 세대로 전수되는 것도 바로 이런 핵가족 제도를 통해서다. 핵가족 하에서 성(性)에 대해 급속적으로 억압한 결과 아동들에게서 신경증적이고 반사회적인 인격적 특성이 생겨나기도 한다. 많은 경우 부모들은 자신이 가진 특정 종교(유대교, 기독교 등)나 정치적 입장(미국에서는 공화당을 지지하는가 또는 민주당을 지지하는가 등)를 자식도 따라야 한다고 강요한다. 유대교 가정에서는 남자아이가 13살이 되면 유대교 성년식인 ‘바 미츠바(Bar Mitzvah)’라는 것을 열어야 한다고 은근히 압박하거나 또는 대놓고 강요하기도 한다. 이는 ‘남자아이가 성인이 된다’는 표시다. 하누카, 크리스마스 등은 아동이 강제로 참여해야 하는 종교적 잔치다. 자신 스스로 종교적, 정치적 신념을 갖도록 하는 기회를 아동은 부여받지 못한다.

아이가 5살 무렵이 되면 학교에 보내지는데, 이 곳은 아나키스트 밥 블랙이 정확하게 지적한 것처럼 ‘아동수용소’라 부를 만하다. 이런 기관에서 아동은 교사에 의해 주의깊게 감시를 당한다. 교사는 아동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할 때마다 보고를 해야 한다. 학교의 목적은 아동이 어떤 식이든 자유로운 생각이나 개인성의 징후를 보일 때마다 은근히 또는 명시적으로 제재를 가함으로써 그것을 꺾어놓는 것이다. 아동이 ‘제대로’ 행동을 하지 않을 땐 학생주임에게 보낸다거나, 교무실에 가둬놓는다거나, 정학시킨다거나, 퇴학처분을 내린다거나 또는 낮은 성적을 주는 등의 처벌을 가한다. 사립학교 대부분에서 그리고 많은 공립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복장과 두발의 규정이 가해진다. 웃옷은 반드시 가지런히 바지에 넣어야 한다거나 허리띠를 반드시 매야 한다는 식의 조항까지 있을 정도다. 문신을 하거나 머리를 염색하거나 귀걸이나 피어싱을 하거나 또는 기타 다른 방식으로 개인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학생들에게는 학생주임이나 또는 교장이 직접 나서서 호통을 치고 이를 금지시킨다.

학생과 교사의 관계는 노동자와 사장의 관계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사장은 회사를 소유하고, ‘행동 규정’을 마련하며, ‘생산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권위자에게 의문을 품고 반문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며, 학생들의 분노는 학생자치기구나 학교가 인정하는 학생회 등을 통해 조절된다. 이는 거대한 노동조합총연맹(미국의 경우 AFL-CIO 같은 단체)을 통해 노동자들의 분노가 조절되는 것과 유사하다. 학생자치구가 사소한 개혁을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아나키즘이 요구하는 것처럼 학교의 존재 자체에 대해 반문을 제기하고 학교에서 벌어지는 강요와 폭력의 철폐를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학교가 감옥과 얼마나 많은 점에서 닮아 있는가

살펴보는 것도 매우 흥미롭다. 감옥과 학교 모두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적용된다. 권위적인 구조, 복장과 두발규정,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 정숙과 질서에 대한 강조, 금지규정을 지키기 위한 단속, 행동에 대한 규제,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이 되지 못하는 비본질적인 보상제도, 개인 자율성에 대한 상실, 자유에 대한 억압,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것 등.

이에 다음과 같은 질문이 나온다.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이와 같은 특정한 종류의 억압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점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작업장 - 학생들은 패스트푸드점 같은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최저 임금을 받으며 착취를 경험한다 - 에서 기존의 질서를 완전히 전복할 수 있는 분위기부터 만들어내는 것이다. 다른 청소년들과 함께 자신이 부모와 성인들로부터 어떤 처우를 받고 있는지, 그것이 부당하지는 않은지 이야기해보자. 계급에 대한 자각은 필수적이다. 아동이나 청소년은 자신이 하나의 독특한 계급으로서 억압받는다는 계급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와는 반대로 억압하는 계급은 삶의 조건에 대해 명령을 내린다. 아나키스트들의 국제노동조직인 세계산업노동자회 IWW(Industrial Workers of the World)의 규약서문을 알기 쉽게 바꿔서 말해보면, 억압하는 계급과 억압받는 계급은 공통점이 하나도 없다.



구체적으로 조그만 방식의 불복종을 실행에 옮길 수 있다. 예를 들면 국기에 대한 맹세를 거부하거나, 학교가 강요하는 종교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 또는 학교에서 내준 숙제를 할 때 과제의 주제로 청소년운동의 역사 또는 엠마 골드만이나 학교에서 아나키스트 동아리를 만들고 반전 티셔츠를 입고 등교했다는 이유로 정학을 당한 15살 학생 케이티 시에라Katie Sierra 등을 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학생들 앞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해보자. 이는 노동자들의 작업거부나 태업과 비슷한 방식의 불복종이다. 학교 바깥에서 다른 이들과 대화하고, 책을 읽고,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등 스스로를 교육시켜보자. 자기 생각을 담은 전단지들을 만들어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학교에 붙일 수도 있다. 혼자서 또는 친구들과 소책자나 잡지를 만들어 학교에 돌릴 수도 있다. 학생들의 수업거부, 동맹휴학 또는 ‘길거리를 되

영화 <가족의 탄생> 평론

사랑은 개인이 사회에 입히는 상처이다. 이 명제는 역사적으로도 옳고, 개인의 연애사를 슬쩍 들춰보더라도 옳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사랑은 사람을 사회 부적응자로 만든다. 사랑은 사회에 조금씩 잠식하며, 사회를 해친다. 사회는 사랑을 방어하느라 바쁘며 때론 폭력적으로 사랑에 개입한다. 이것이 사회와 사랑의 관계다. 화해하기 어려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화해를 꿈꾸는 영화가 여기 있다. <가족의 탄생>이 그것이다. 영화는 그 비틀어진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고통스런 싸움이 어떻게 화해될 수 있는가를 슬쩍 보여준다.

채현(정유미)은 자기가 몸담고 있는 사회에 헌신적인 인물이다. 어떤 치밀한 논리를 갖고 사회에 노력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다. 거의 원초적으로 사회의 건강을 유지하려 애쓴다. 채현과 경석(봉태규)이 기차에서 처음(?) 만났을 때 '착한 사람' 운운 하는 것을 보면 사랑이 시작되기 전에 둘 다 (사회적으로) '착한' 사람들이었다. '착하다'는 틀림없이 사회를 보다 건강하게 지탱하기 위한, 사회적 담론이다. 경석에게 채현이 관심을 보인 것도 착하기 때문이었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착한' 채현에게 '착했던' 경석은 '그만 착하기를' 청하고 강요한다. 왜? 경석은 채현이 자신에게 착해지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착하다'는 하나의 이데올로기이며 이데올로기의 사회성을 벗기는 것이 경석에게는 곧 사랑인 것이다.

그러한 경석의 시선은 선경(공효진)이 경석의 아버지 집에서 파운 소란과 연결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선경은 그 집에서 경석의 아버지에게 묻는다. 그 물음의 형식은 경석의 아버지가 갖고 있는 사회에 공개적이다. 공개재판장에서 경석의 아버지는 선포한다. 사랑한다고 말함으로써 사회(가족)에 상처를 입히며 '사회적인 착함' 보다 '나쁜 연애'를 지지한다.

10면에서 계속

찾자' 등의 방식도 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본질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엽적일 수도 있는 문제들 예를 들어 강제적으로 이뤄지는 야간자율학습이나 두발규제 등을 다룰 수도 있겠지만, 학생들은 이런 문제들을 접하면서 더욱 급진적이 되어 문제의 뿌리에 다가갈 수 있게 된다.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예를 들어 내가 사는 지역의 한 아나키스트 동아리는 근처 개훈련장에 붙어 있던 '복종을 가르칩니다' 라는 문구를 떼어내 한 고등학교에 펠러이도록 붙여놓았다. 이런 행동은 어느정도 성공을 거둘 수 있다. 부모들과 학교 당국은 예전엔 별로 저항을 받지 않고 지나갔던 것들이 이제는 학생들로부터 저항을 일으키게 된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전엔 자신들이 학생을 감시하고 통제했지만 이제 자신의 그런 권력이 도전을 받으며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학생은 전혀런 형태가 없는 한 무리의 운운한 양떼가 아니라 계급의식을 갖고 지성을 갖춘 젊은 청소년들로 조직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젊은이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으며, 자신에게 명령을 내리는 주인을 영원히 없애나갈 것이다.

아나키즘은 청소년 해방에 있어서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다. 권위주의에 반대하고 강요와 폭력에 반대하는 아나키즘의 기본 원칙은 청소년이 처해 있는 노예와도 같은 속박상태에서 청소년이 자유로워지는데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다. 청소년의 해방에 있어서 아나키즘은 부모의 강요를 제거하는 것만이 진정한 해방이 아니라는 통찰을 제공한다. 즉 청소년의 해방을 가져올 수 있는 대안을 창조해내야 한다는 점이다. 대안을 창조하는 것이야말로 '이중권력 전략'의 좋은 예이다. 새로운 사회는 낡은 사회의 껍질을 벗고서 태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마크 시버스타인 Marc Siverstein이라는 사람이 쓴 것을 요약골(뚝헤드) 씨가 번역하고 일부 한국 상황에 맞춰 편집한 것입니다. 요약골 씨가 널리 퍼뜨려 달라고 했기에(;) 오승희에 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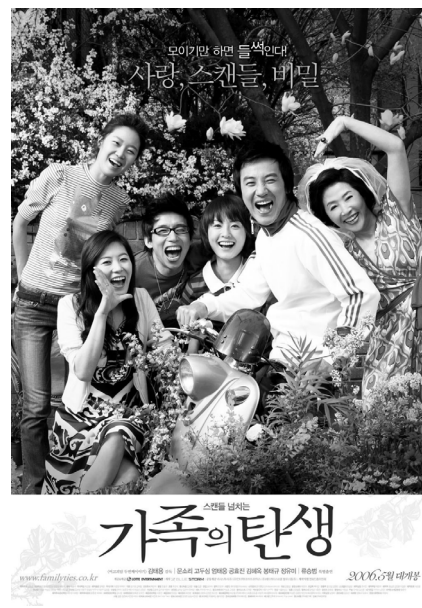
바람난 유부남의 집에 가서 유부남을 공격하는 광경은 익숙하다. 김기덕의 <사마리아>에서 비슷한 모습이 나타난다. 원조교제를 한 <사마리아>의 유부남은 자살을 선택한다. 이를테면 마초의 죽음일 것이며, 김기덕이 공격받는 것과는 정반대로 지극히 페미니즘 논리에 일치한 정치적 사유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의 탄생>은 바람난 유부남에게 정치적인 시선을 입히지 않는다. 이 영화는 단지 사랑에 대한 영화이기 때문이다. 가족이 있는 자리에서 다른 여인에 대한 사랑을 내뿔어야 하는 경석의 아버지는 심지어 연민스럽다.

경석의 아버지에 대한 연민은 단순한 감정이입이 아닌 작가에 의해 철저히 계산된 연민이며 그 증거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때문에 이 영화로부터 귀어 혹은 대안가족, 가부장제 등의 정치성을 읽는 것은 위험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썩 알맞은 답이 나오지 않는다.) 사랑을 말하는 자들은 고립된다. '사랑의 고립'이 영화의 근본적 모티브다. 그 모티브는 영화의 모든 에피소드를 아우른다.

사회에 대항하는 사랑의 고립을 모티브로 인물을 읽어본다.

- a. 형철(임태웅): 형철은 부정적인 마초성이 두드러지는 캐릭터이다. 이 캐릭터는 가족(사회)에 의해 정치적으로 고립된다. 이 영화에서 가족의 정치성을 읽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하고 가장 강렬하며 노골적으로 작위적인 대목이다. 미라와 무신은 형철에 대응하는 전형적이며 상반된 인물이다. 미라와 무신의 화해는 그래서 흥미로워진다.
- b. 선경: 결국 선경은 결혼을 하지 않고 홀로 지내는 것으로 표현된다. 선경은 경석의 아버지를 찾아가 그의 '사회'를 파괴하도록 종용했다. 사랑의 파괴적인 광경을 목격한 유일한 인물이다. 선경은 훗날 합창반원이 되는 것은 재미있는 대목이다. 합창반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사회성의 아름다움이다. '사회'를 파괴한 선경은 사랑보다는 사회의 미덕에 충실한 인물이 되었다. 개인주의적이던 선경이 경석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아이러니는 그래서 이해될 수 있다.
- c. 채현: 경석은 끊임없이 채현에게 사회성을 벗도록 종용한다. 사회성을 벗어야 곧 사랑을 이루는 것이며, 연인-가족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족의 탄생>은 여기서 발생한다. 채현이 그 반사적인 사회성을 벗을 수 있는가는 숙제로 남겨둔다. 그 결과를 미루어 둔 것은 사회와 사랑의 피흘리는 싸움을 성급히 마무리지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선경과 그의 옛애인(류승범)이 서로 던지는 말은 유의미하다: "나한테 왜 이래(왜 막 해?)" 하나의 사회를 구성코자 하는 노력, 하나의 담론으로 묶고자 하는 노력은 경석에게서도 드러나듯이 다분히 폭력적이기 때문이다. <가족의 탄생>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나 궁급해 하는 것이다. 내 가족, 내 연인에게 나타나는 폭력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 질문이 너무 무겁거나 사라지거나 드러난다면 사랑, 혹은 가족의 내밀함은 붕괴된다. 선경과 그의 애인이 가족이 되지 못하고 '나한테 왜 이러냐'고 소리치며 헤어졌듯이.



어떤 학교로부터의 편지 1부 <성채> 3

썩은 고기 사건 이후로 그나마 남아있던 '점심시간'조차도 이상하게 변해갔다. 버리는 음식이 눈에 띄게 늘어났으며, 아예 급식을 먹지 않고도 시락을 먹는 사람들도 소수지만 생겨났다. 게다가 아주 은밀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분노하게 된 몇몇 소모임들이 만나서 뭔가를 계획한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다. 일은 더 기다릴 것도 없이 고기 사건이 일어난 지 이주일쯤 되었을 때에 터졌다.



그 주의 월요일 1교시는 학생들에게 자습시간, 교사들에게 교무회의 시간이었다. 그러니까 그 교무회의 시간에 교무실에서는 굉장히 큰 소리가 들렸다. 학년부장의 굉장히 큰 호

통소리였기에 각 교실에서도 비교적 제대로 들을 수 있었다. 곧이어 구둑발 소리와 함께 비명소리가 들렸고 그것은 점차 흐느껴 우는 소리로 변했다. 당연하게도 학생들은 모두 교실 밖으로 나가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려고 했지만 역시 당연하게도 교사들이 막는 바람에 자세한 정황을 알 수는 없었다. 그 날 점심시간은 예외적으로 교실 배식이었으며, 각 교실마다 교사들이 배치되었다. 무슨 장난인지는 모르겠지만 교사들은 이 와중에도 자신들만이 먹을 수 있는 특별식단을 먹었다. 개밥이라 불리는 일반식단을 먹는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물론 잡담은 일체 금지되었지만 급식에서 썩은 고기가 나온 마당에 교사들이 누리는 특권을 보니 밥이 넘어가지 않았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런 듯 수저를 들지 않고 있었다.

순간 누군가 일어나서 소리쳤다. "식사중지! 밥이 넘어가는가! 학교에게 썩은고기 문제삼다 쫓겨난 교사들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 이어서 다른 교실에서도 비슷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수저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박자를 맞추기 시작했다. 교사들이 말리려고 달려들었지만 한 명이

잡혀있으면 나머지 서른 명이 수저를 잘그락거렸고, 또 다른 사람을 잡으면 아까 잡았던 사람까지 포함해서 나머지 서른 명이 수저를 잘그락거리는 판이니 말릴 수 있을 리가 없었다.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눈치만 보던 학생들도 하나 둘 그 상황을 즐기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이 낯설게 느껴지지만은 않았던 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식당에서의 개별논쟁으로 시작된 소모임 활동 때문이었던 것 같다. 모두 어떤 입장을 선택하는 것에 거리낌 같은 것은 없었다. 그 동안 저항할 수 없으리라 믿으며 모든 것을 빼앗겨 오던 터라 저항의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자 저항은 필연적으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오전 수업시간에 들어오지 않았던 교사들 몇몇 또한 단 한 교문 밖에서 뭔가를 울부짖으며 외치고 있었다. 교실에 있던 몇몇 학생들은 급하게 뭔가를 써서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있었다. 받아보니 아침의 소동은 썩은 고기사건이나 학생회가 없는 학교의 문제점을 지적한 교사를 때리고 내쫓은 일이고, 학생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다 쫓겨간 교사들이 다시 돌아와야 한다고 되어 있었다. 나중에 활동을 계획했던 소모임에 있던 친구에게 들으니 소모임에서 뜻이 맞는 교사와 상의해가며 학

교와 맞설 준비를 했지만 그 날의 일은 갑작스러워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준비야 어찌되었든 노트에 급하게 써서 돌려보는 전단지 는 학생들의 저항을 더욱 뜨겁게 해주었다.

또한 주목할 것은 급식에 대한 내용만으로 가득 차 있던 외침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체벌반대, 시험폐지, 두발자유' 등의 제각기 다른 내용들을 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한 시간쯤 흘렀을까? 급식통은 없어져서 분위기를 돋구는 철북이 되었고, 학생들을 잡으러 뛰어다니던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 뛰어다니게 되었다. 국기대 위에서 매미홍내를 시키던 교사는 공교롭게도 자신이 국기대 위에 올라가 고기 깃대로 찢러대는 학생들에게 통사정을 하고 있을 정도의 환상적인 상황이었다. 성적표와 생활기록부를 없애야 한다고 들어간 학생들이 교무실에서 연기로 봉화를 올림과 동시에 온 교실은 승리를 자축하는 함성소리와 웃음소리로 떠들썩했다.

(* 이 글은 오승희에 계속 연재되는 연재소설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표절만땅]

“여러분의 불온한 꿈들을 받습니다”

✧ 청소년자유언론 「오답 승리의 희망」입니다. “오승희”나 “승희”라고 친근하게 불러주세요. 대체로 한겨레결체를 씁니다. 1년에 4번 내고 있습니다. 자매지 「청소년의 눈으로」가 있습니다.

오승희는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투고해주는 글들을 받아서 만듭니다.(청소년 아니어도 투고해도 괜찮지만 일단은 검열 없는 자유로운 신문을 지향하지만, 지면이 부족할 때는 못 실어드리기도 해요 후후.

투고받은 글들은 편집진의 입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편집진의 입장이 딱 정해져 있는 건 많지 않지만요. <투덜리즘> 외에 편집진의 의도는 전체 글 배치를 통해 추측해주세요 ^^;

후원은 **농협 079-12-940026 유윤종** (이번에 담당자 바뀐...)으로 해주시거나 저 위에 있는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해주시면 됩니다. 승희가 힘

들어요, 1000원이나 10000원만 주세요.



“여러분의 불온한 꿈들을 받습니다.” 지금도 오승희는 여러분의 꿈들을 먹고 삽니다.

그리고 보니 2살이 돼도 여전히 오승희는 '지하신문'이군요. 소로우를 페리디하자면 “언론을 부당하게 탄압하는 사회에서 정의로운 언론이 있을 곳은 역시 비합법적 지하다.” 뭐 그렇죠.

✧ 오승희가 이제 만 2살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간호에 글을 투고해달라고 홍보했던 전단지의 문구를 다시 한 번 실어봤습니다. “여러분의 불

온한 꿈들을 받습니다” ✧ 공교롭게도 마침 오승희라는 시인 분이 있더군요.(진짜임) 그 분의 시 하나가 눈에 띄어 불평합니다. 독자&필자&후원인 여러분, 사랑가진 안 하지만(뵙힌다) 여하간 잘 부탁드립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오승희

그대여,
희망을 갖게나
하늘에 소망을 두고
과거에 집착하면
앞을 보지 못한다네

눈물은 흘러되
좌절은 말게나
고독나무에도
꽃이 피지 않던가
다시 시작하여 보세